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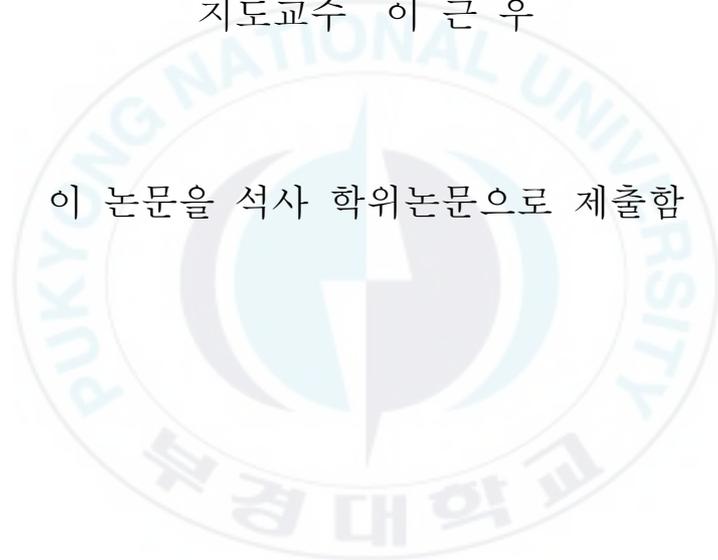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금관총 출토 명문 속의
'𠵼斯智王'에 대한 검토

지도교수 이 근 우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최 철 영

최철영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2월 24일



위원장 문학박사 김 문 기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세 현 (인)

위 원 문학박사 이 근 우 (인)

Review about the swords "King Isaji" engraved on the scabbard that
excavated from Geumgwanchong

Cheol Young Choi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recently discovered - during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an ancient ring-pommel sword unearthed at the Geumgwanchong Tomb in 1921 - the swords "King Isaji" engraved on the scabbard. Historians regard the discovery a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first such discovery at a tomb of ancient Silla. But nobody knows who King Isaji is. Because it never discovered at 『Samguksaki』 and 『Samgukyusa』.

So refer to the 『Nihonshowki』 that analyze the swords "King Isaji" engraved on the scabbard. As a result, "King Isaji" is "Isabu", the general of ancient Silla. Because of this, it can make new set of Geumgwanchong's age. Or base on archeological research, it can make conjecture to "Isabu gave the swords to King Isaji".

목 차

I. 머리말

1. 문제제기
2. 연구동향

II. ‘尔斯智王’과 관련 사료

1. ‘尔斯智王’의 한자 표기 분석
2. 『日本書紀』 속 ‘尔斯智王’

III. ‘尔斯智王’을 통한 금관총의 연대 재설정

1. 금관총의 연대추정
2. 異斯夫와 ‘尔斯智王’
3. 금관총의 연대 재설정
 - 가. ‘尔斯智王’ 명문을 중심으로
 - 나. 고고학적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IV. 맺음말

금관총 출토 명문 속의 ‘尔斯智王’에 대한 검토

I. 머리말

1. 문제제기

금관총(金冠塚)은 1921년 주택 공사 중 최초로 금관이 발견된 신라 무덤이다. 금관총은 신라고분 중에서 가장 커다란 고분 가운데 하나였지만 일제시기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봉분이 깎여나가 그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주읍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옥 건축을 위해 지면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 중 아이들이 파란색 유리옥을 가지고 놀던 것을 발견한 경주경찰서 순사 미야케 요산[三宅與三]이 고분인 것을 직감하고 발굴을 건의했다고 한다.¹⁾ 이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주도로 금관총 발굴이 시작되었고 금관을 비롯한 4만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어 오늘날까지 경주역사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경주 금관총 : 발굴조사보고서(국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적지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관총의 발굴은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문 고고학자가 주도한 발굴도 아니었고, 4일 만에 발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한 채 총독부에서 발굴한 발굴조사보고서만이 유일한 정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관총 출토 유물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관총 발굴 이후 92년이 지난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관총 고리자루큰칼[環頭大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奈斯智王’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이는 신라무덤에서 출토된 최초의 왕호이며 ‘奈斯智王’이라는 왕명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신라 금석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奈斯智王’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4년 학술 심포지엄 <금관총과 이사지왕>을 통해 금관총의 발굴 과정 및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연구자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奈斯智王’을 해석하려고 하였고,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관련 특별전시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2015년 4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한 <금관총과 이사지왕>특별 전시를 다녀와서 ‘奈斯智王’ 논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금관총 발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새롭게 발견된 신라 관련 자료인 데다 국내의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라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국내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奈斯智王은 누구인지, 국내에서 찾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日本書紀』 사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나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이번 연구 주제로 결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까지의 ‘奈斯智王’ 관련 연구 현황을 알아보고, 신라 금석문의 표기 방법을 참고하여 ‘奈斯智王’ 명문의 의미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후 분석을 참고하여 『日本書紀』에서 찾아낸 ‘奈斯智王’의 표기를 확인한 후 그가 누구인지, 기존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구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동향

경주지역 신라고분의 상대편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리된 것에 비해 절대연대의 비정에는 아직도 큰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학계에서 고분을 비롯한 신라·가야 고고학 자료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약 50년 정도씩 차이가 있으며, 최대의 쟁점은 황남대총(皇南大塚) 남분(南墳)의 연대이다. 현재 황남대총 남분을 402년의 내물왕릉으로 비정하는 견해와 458년의 눌지왕릉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최고의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인 황남동 109호분의 3·4곽의 연대도 4세기 후반 설과 5세기 초 설로 나뉘어,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큰 상황이다.²⁾ 이렇듯 신라 연구에서 고분의 편년 문제는 현재 까지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관총 출토 유물 복원 작업 중 ‘奈斯智王’ 명문이 새겨진 칼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奈斯智王’명 대도(大刀)의 발견은 신라고분의 편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奈斯智王’을 해석하려는 많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2) 최병현(2014),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금관총과 이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p.14

2014년 7월 11일 <금관총과 이사지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 먼저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인 최병현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는데,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신라고분의 발굴과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신라고분의 시기 구분을 통해 경주 월성북고분군(月城北古墳群)의 형성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신라고분을 원삼국과 신라로 크게 구분하고, 원삼국은 전기와 후기, 신라는 조기, 전기, 후기로 구분했다.³⁾

다음으로 경주 시내 고분군인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을 논의하였다. 월성북고분군은 원삼국시대 후기 형성되기 시작하여 신라 조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새 고분을 축조해가고, 이전에 고분이 조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으로 고분 축조가 확대됨으로써 월성북고분군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했다. 또 신라 전기가 되면 분명한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월성북고분군은 크게 2개의 A군과 B군으로 분화하고 A군은 다시 노서동과 노동동 지구가 별도 구역을 이루면서 A-1군으로 분화하였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마립간 시기 왕릉의 배치에 대해 논의했는데, 먼저 황남대총을 기준으로 125호분[봉황대], 106호분[전 미추왕릉], 90호분, 39호분의 위치와 분포 상태에 주목하고 신라 마립간 시기에는 크게 2차례의 기획에 의한 의도적인 배치로 왕릉군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했다. 첫째는 내물왕릉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을 중심으로 그 앞쪽[동쪽]에 황남동 90호분과 황오동 39호분을, 그 북쪽에 노서동 125호분[봉황대]을 고총으로 배치한 것은 눌지왕 때의 기획으로 이것이 1차 기획이다. 다음으로 2차 기획은 지증왕이 왕위 계승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위해 106호분[전 미추왕릉]을 수증하였고, 자신의 무덤인 155호분[천마총]을 황남대총, 90호분, 39호분의 연장선상에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최병현(2014), 앞의 논문, 국립중앙박물관.

결국 최병현 교수는 마립간 시기 왕릉군을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누어 A-1군 구역, 황남대총과 그에 근접하여 있는 일군, 그리고 황남동 106호분으로부터 천마총까지 도열한 대형분들 중심의 일군으로 구분하고, A-1군은 눌지왕과 그 직계 후손들의 고분구역, 황남동 106호분부터 천마총까지의 일군은 지증왕 조부 직계 후손들의 고분구역, 황남대총과 근접한 일군은 내물왕릉과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내물왕자들의 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왕릉에 대해서 내물왕릉은 황남대총, 눌지왕릉은 125호분[봉황대], 자비왕릉은 130호분[서봉황대], 소지왕릉은 134호분, 지증왕릉은 155호분[천마총]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월성북고분군 B군은 실성계가 조성한 고분군이며, 교동 119호분을 실성왕릉으로 추정했다.

성립문화재연구원 박광렬 원장의 「신라 적석목곽분 연구와 금관총」⁴⁾에서는 신라고분의 비정에 대해 최병현 교수와 다른 의견을 보인다.

박광렬의 연구에서는 적석목곽분 구조의 재해석 및 왕릉의 비정과 절대연대를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관총의 위계와 성격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목곽묘(木槨墓)와 위석목곽묘(圍石木槨墓), 적석목곽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적석목곽분을 지하식 적석목곽분과 지상식 적석목곽분으로 세분했는데 금관총은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황남대총 북분이나 천마총과 같은 지상식 적석목곽분, 내곽과 외곽을 갖춘 이중곽 구조로 추정했다.

박광렬은 신라고분에서 찾을 수 있는 절대연대 자료를 검토하여, '奈斯智王'명 대도가 출토된 금관총의 연대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서봉총 자료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서봉총에서 십자형꼭지가 달린 은

4) 박광렬(2014),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考古學誌』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제합(銀製盒) 뚜껑의 내면과 합(盒)의 저면에서 음각으로 된 명문이 발견되었고, 이것으로 고분의 절대연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제합의 내면에 새겨진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太王敬造合杆用三斤六兩’과 외면에 새겨진 ‘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中 太王敬造合杆用三斤六兩’을 보면 연수 원년에 대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문에서 ‘延壽’는 연호로 짐작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에서는 이 연호가 중국, 일본, 한국에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 또 다른 단서인 신묘년의 경우 현재까지 적석목곽묘의 편년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4개 안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4가지 안은 1) 391년(신라 내물마립간 36년, 고구려 광개토대왕 원년), 2) 451년(신라 눌지마립간 35년, 고구려 장수왕 39년), 3) 511년(신라 지증왕 12년, 고구려 문자왕 20년), 4) 571년(신라 진흥왕 32년, 고구려 평원왕 13년)이다.⁵⁾

이 중 1)안인 391년은 적석목곽분의 연대와 출토유물의 상대편년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고 4)안의 571년은 보문리 부부총의 조사 결과와 적석목곽분의 소멸 시기를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다. 2)안 451년의 경우 은합의 명문 내용과 연대가 장수왕과 관련된 것으로 고구려에서 수입된 것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봉총의 유물로 비추어 볼 때 50년 이상의 시기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3)안의 511년이 가장 합당한 시기로 추측된다고 한다.

이것을 토대로 문헌자료와 비교하면 511년은 지증왕이 즉위한지 12년이 되는 해로, 이때 지증왕의 나이는 75세가 된다. 이것으로 추측했을 때 은합은 지증왕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서봉총의 절대연대를 511년으로 주장했다.

박광렬은 이렇게 추측한 절대연대를 기반으로 마립간기 왕릉을 비정하였

5) 박광렬(2014), 앞의 논문, 국립중앙박물관.

는데, 먼저 황남대총 남분을 실성왕릉으로 추정하고, 내물왕릉은 교동 119호분, 눌지왕릉은 106호분[전 미추왕릉], 자비왕릉은 125호분[봉황대], 소지왕릉은 130호분[서봉황대], 지증왕릉은 134호분으로 주장했다. 금관총이 출토되었다고 해서 왕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금관총은 봉분의 규모로 볼 때 대형분 30여 개 중 중간 정도 크기에 해당되므로 왕릉으로 보기 보다는 자비왕릉인 125호분의 배총(陪塚)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박광렬의 왕릉 비정안은 최병현의 비정안과 큰 차이가 있다. 두 안을 비교해보면 첫째, 최병현과 박광렬 모두 황남대총 남분과 교동 119호분, 125호분, 130호분, 134호분을 왕릉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병현은 155호분[천마총]도 왕릉으로 보았으나 박광렬은 왕릉으로 보기 보다는 지증왕의 조부 무덤으로 추정했다. 둘째는 황남대총 남분과 교동 119호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교동 119호분을 황남대총 남분보다 먼저 축조된 고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최병현은 반대로 황남대총 남분이 먼저 축조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최병현과 박광렬 모두 왕릉 비정에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금관총이 마립간기 왕릉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견해가 그동안 발굴되었던 신라고분의 형태와 출토 유물을 통해 금관총을 분석한 연구 결과였다면, ‘奈斯智王’명 대도의 명문을 분석하여 문헌 자료와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도 존재한다. 국립대구박물관 이용현 학예연구사가 발표한 「‘奈斯智王’명 大刀와 新羅文字資料」⁶⁾를 살펴보면 신라고분 출토 문자 자료와 중고기 신라 비문과 각석 등 관련 자료를 금관총 출토 자료와 비교, 검토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관총은 1921년 9월 발굴되었는데 발굴보고서가 완전히 발간되지 않아

6) 이용현(2014), 「‘奈斯智王’명 大刀와 新羅文字資料」, 『考古學誌』 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완간되지 못하였다. 간행된 부분에서는 개요와 토기, 금속기 칠기와 유리제품, 이식과 과대 등 장식품까지만 서술되어서 대도 관련 서술 부분은 간행되지 못하였다. 보고서에 서술된 현장조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정리와 복원도 역시 서로 맞지 않아 유물 중 상당수가 출토상태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처럼 유물의 출토양상과 유물 자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용현은 보고서에 등장하는 대도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금관총과 같은 경주 내 고분에서 출토된 문자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고분 소재 문자 유물의 상당량이 고구려의 것 혹은 고구려를 통해 들어온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후 이용현은 ‘奈斯智王’명에 대해, 신라 중고기 초기 석문인 비석과 각석을 소재로 해서 찾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금관총 대도 명문에서의 ‘奈斯智王’은 ‘奈斯智(이름) + 王’의 구성으로 이용현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냉수리비의 ‘喙/ 夫智/王·乃智/王’과 천전리 서석의 ‘徙夫智/王’과 동일한 표기라고 한다. 냉수리비의 王은 소지왕, 눌지왕으로 간주되고 있고, 천전리 서석의 사부지는 울진봉평신라비의 인물인 ‘沙喙部/徙夫智/葛文王’과 동일인이다.⁷⁾ 그러므로 이용현은 ‘奈斯智王’은 매금왕이나 갈문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주류부인 탁부나 사탁부의 고위자이거나 비주류부의 부장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전제로 ‘奈斯智王’의 가계를 찾아본 결과 매금왕과 갈문왕의 족보에서 찾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서술하며 주류부인 탁부나 사탁부의 고위자 혹은 비주류부의 부장 중 한 사람일 결과가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한 금관총 명문대도는 ‘奈斯智王’을 대상으로 한 주술적 의례를 위해 제작, 사용된 것으로 주장했다.

7) 이용현(2014), 앞의 논문, 국립중앙박물관.

또 다른 연구는 문헌자료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고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奈斯智王’명 대도를 분석하는 방향을 보이기도 한다.⁸⁾ 김재홍 국민대학교 교수는 명문대도와 명문을 분석 한 후 ‘奈斯智王’과 금관총의 피장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금관총에서 출토된 대도를 정리하고 각각의 출토위치를 명확히 한 후 ‘奈斯智王’명 대도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이 아니라 부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문자를 새긴 방법은 3가지 정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문자를 새긴 시점이 다를 가능성을 추정하였고, 명문의 내용은 ‘奈斯智王’과 약자인 ‘奈’는 구체적인 단어로 고유명사로 구분되고 ‘八,’과 ‘十’이라는 부호 또는 숫자로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고 했다. 이 중 ‘奈斯智王’은 신라 중고기 왕명표기를 참고했을 때 奈斯(이름)/智(존칭)/王(직명)을 나타내어 왕의 이름이 이사지이며, 후대와 같이 묘호를 쓰기 전에 신라에서는 왕의 이름을 왕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十’의 경우 칼의 사용과 무덤에 부장된 의미로 보아 주술과 관련하여 무덤에 묻힌 영혼이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게 봉하는 의미에서 ‘十’을 대도나 허리띠 꾸미개에 새긴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八’의 경우 3개나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도의 일련번호라기보다는 대도가 보관된 무기고의 창고 번호가 8번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덧붙여 ‘奈斯智王’, 명문대도, 금관총의 피장자를 함께 검토하여 ‘奈斯智王’명 대도가 착장된 것이 아니라 피장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부장된 점, ‘奈斯智王’이라는 표기는 남성 왕의 호칭인 점 등에서 명문대도는 ‘奈斯智王’의 것이지만 금관총 피장자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奈斯智王’은 금관총의 피장자가 아니며 ‘奈斯智王’은 자비왕이나 소지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⁹⁾

8) 김재홍(2014), 「金冠塚 출토 ‘奈斯智王’ 銘 大刀와 피장자」, 『考古學誌』 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9) 국립중앙박물관(2014), 『금관총과 이사지왕』, p.43.

또한 ‘糸斯智王’을 혼독하여 ‘너사지왕’으로 읽고 금관총의 연대와 결부시켜 눌지왕이라 추측하는 의견도 있다.¹⁰⁾ 김창호의 의견에 따르면 ‘糸斯智王’을 신라 중성리비와 냉수리비와의 비교로 왕명으로 보고 ‘糸’를 혼독하여 ‘糸斯智王’을 ‘너사지왕’이라 읽고 눌지왕으로 추측, 금관총을 458년의 눌지왕릉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금관총의 상대편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糸斯智王’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부족한 국내 문헌과 일제 시기 총독부 주관으로 작성된 고고학 자료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금관총 재발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0월 21일 진행된 <마립간의 기념물 : 적석목곽분>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어 금관총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성과 발표가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로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발표한 「金冠塚被葬者の性格再考」¹¹⁾가 있다.

이에 따르면 윤상덕은 금관총의 규모를 추정하여 피장자의 신분적 위치를 추정하고자 했다. 비록 護石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금관총의 규모와 형태를 완전히 찾았기 때문에 다른 적석목곽묘의 발굴 사례와 비교하여 고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금관총이 신라 전기 무덤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위해 금관총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호석이 발견되지 않아 금관총 적석부의 규모를 다른 적석목곽묘의 발굴 사례와 비교하여 대형 적석목곽묘의 호석 길이가 적석부 길이의 약 2배이므로 금관총 호석의 지름을 45M로 추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10) 김창호(2014), 「신라 금관총의 糸斯智王과 적석목곽묘의 편년」, 『新羅史學報』 第32號, 신라사학회.

11) 윤상덕(2016), 「金冠塚 被葬者の性格再考」, 『마립간의 기념물 : 적석목곽분』, 국립경주박물관 심포지엄.

봉분(封墳) 외형을 통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봉분의 규모가 신라 전기 무덤의 3군에 속하므로 금관총은 마립간의 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는 피장자의 성별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장자의 성별은 금관총의 피장자와 ‘奈斯智王’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별을 판별하기 위해 귀걸이의 착장을 제외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귀걸이 외에 성별을 나타내는 장신구와 부장품들을 뽑아내어 신라 전기의 적석목곽묘 71기의 출토양상을 정리했지만 명확히 결론 낼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금관총의 출토품이 남성적인 부분과 여성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기법 중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관련 부장품의 출토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만약 금관총의 피장자가 여성이라면 피장자는 ‘奈斯智王’이 아니며, ‘奈斯智王’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람이 되고, 결국 ‘奈斯智王’은 금관총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봉황대의 피장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남성이라면 금관총의 피장자를 ‘奈斯智王’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윤상덕은 주장하였다. 그것은 금관총의 부속장식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귀걸이 등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통계기법을 활용한 결과 금관총의 피장자는 남성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奈斯智王’이 금관총의 피장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봉분의 규모로 보아 금관총은 마립간의 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奈斯智王’은 6명의 마립간 중에 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냉수리비에 나오는 ‘七王’과 같은 6부의 최고위층에 속하는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나오긴 했지만 신라고고학 연구가 가진 국내 사료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아직까지 ‘奈斯智王’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필자는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奈斯智王’이 누구인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奈斯智王’과 관련 사료

1. ‘奈斯智王’의 한자 표기 분석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는 금관총 출토 세고리자루 큰칼[三累環頭大刀]을 보존처리하는 도중 우연히 칼집 끝에서 명문을 발견하였다. 금관총에서는 총 3자루의 큰칼이 출토되었는데 이 큰칼은 일제강점기 금관총 보고서 도판 하책 80의 (1)금동작소도부삼엽환두태도로 보고된 것이며¹²⁾, 명문은 보존처리를 진행하던 중 칼집 표면을 덮고 있는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번호 K618로 등록되어 있다.

K618 세고리 자루 큰칼에서 발견된 명문은 총 3개이며, 모두 칼집에서 발견되었다. 칼집의 하단 끝 뒷면에서 ‘奈斯智王’ 글자가 확인되었고, 칼의 칼집 끝 앞면, 즉 ‘奈斯智王’이 새겨진 부분의 반대편에서 十, 칼집 상단 끝 앞면에서도 十가 발견되었다.

1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11), 앞의 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193.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중인 금관총의 다른 세고리 자루 큰칼에서도 글자가 확인되었다. 이 칼은 금관총 보고서 하책 도판 80의 '(2)금동작삼엽형환두태도'로 보고된 것이며, 국립경주박물관에 경주352로 등록되어 있다. 글자는 칼집 하단 끝 장식 앞면에 尠, 그 뒷면에 十, 칼집 상단 끝장식 뒷면에서 八이 확인되었다. 앞의 것과 동일하게 칼집의 하단 끝 장식 앞뒤에서 발견되었고, 칼집 상단 끝 뒷면에서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다른 유물에서도 글자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3점은 칼집 부속이며, 나머지 1점은 은제 허리띠 중 버클 반대쪽 끝 부분을 장식했던 것이다. 전자인 3점 중 첫 번째는 금제 칼집 부속에 八, 두 번째는 은제 칼집 부속에 八, 세 번째는 은제 칼집 끝 장식에 十이 새겨져 있다. 후자인 허리띠 장식에는 十이 새겨져 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 금관총 출토 유물에서 확인된 명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K618 세고리 자루 큰칼에서 尠, 十, 尠斯智王이 확인되었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 352 세고리자루 큰칼에서 尠, 八, 十이, 칼집부속에 十, 八, 八, 허리띠 장식에 十이다. 6점의 유물에서 총 10개의 명문이 확인되었는데 허리띠 장식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칼집에 새겨진 것이 특징이며, 尠斯智王과 尠 3개를 제외하면 十이 4개, 八이 3개이다.¹³⁾

명문에 대한 분석으로 이용현의 연구를 살펴보면¹⁴⁾, 그는 먼저 '尠斯智王' 명 대도 문자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관총 출토 고리자루큰칼[環頭大刀]에 보이는 글자의 양상을 재정리 한다면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대도1로 통칭) : 칼집 앞면 상단 '尠', 하단 '尠斯智王'
: 칼집 뒷면 하단 '十'

13) 국립중앙박물관(2014), 앞의 책, 국립중앙박물관, p.19.

14) 이용현(2014), 앞의 논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대도2로 통칭) : 칼집 뒷면 하단 ‘十’

: 칼집 앞면 상단 ‘八’, 하단 ‘尗’

이용현은 대도1 칼집 앞면 하단의 ‘尗斯智王’은 ‘仁斯智王’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같은 칼의 칼집 앞면 상단의 ‘尗’, 대도2의 뒷면 하단의 ‘尗’의 서체와 비교할 때, ‘尗斯智王’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이어 분석하기를 대도 1에서 상단의 ‘尗’는 하단의 ‘尗斯智王’을 가리키는 것으로 略記의 형태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대도 1의 칼집 뒷면 하단의 ‘十’과 대도2 칼집 앞면 하단의 ‘十’은 숫자인지 기호인지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숫자 ‘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대도2 칼집 앞면 상단의 ‘八’은 글자의 방향이 다른 점, 그 크기가 다른 글자의 1/2 이하로 매우 작은 점에서 그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글자의 방향을 살펴보면, 칼1의 앞면 하단 ‘尗斯智王’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며 상단 ‘尗’는 위쪽을 향하고 있다. 즉 ‘尗斯智王’과 ‘尗’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대도1의 ‘十’의 경우 ‘尗斯智王’과 방향을 같이한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칼집에서 양쪽 끝 금구에 판 글자의 방향은 각각 양쪽 끝 쪽을 상단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경우 금구의 상단부부터 붙여 쓰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본다면 앞서 언급한 ‘八’의 경우, 글자방향이 변칙적이고 글자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글자의 확정이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확정적인 글자만 정리한다면,

대도1 ‘尗斯智王 十’

대도2 ‘尗 十’

이는 ‘왕명 + 十’의 형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대도2 앞면 상단의 ‘尗’

는 ‘奈斯智王’을 略記한 것임을 앞서 서술했다.

이후 이용현은 ‘奈斯智王’명에 대해, 신라 중고기 초기 석문인 비석과 각 석을 소재로 해서 찾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신라 중고기 당대 자료에서 王이 신라 왕호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냉1 “喙/ 夫智/王 · 乃智/王”

냉2 “沙喙/至都盧/葛文王”

냉3 “此七王等”(이상 영일 냉수리비, 503년)

봉1 “喙部/另卽知/寐錦王”

봉2 “沙喙部/徙夫智/葛文王”(이상 봉평비, 524년)

천1 “另卽知/太王”

천2 “沙喙部/徙夫智/□□王”

천3 “徙夫智/王”(이상 울주 천전리 서석 追銘=己未年銘, 537년)

이러한 자료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자료는 바로 냉3의 “此七王等”이다. 현재까지도 해석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냉수리비에 따르면 이들은 갈문왕을 비롯한 6부의 최고지배자 집단으로 共論하여 敎를 내리고 있다. ‘此七’이 공론집단 7인을 지칭한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王’에 대해서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리하면 이와 같다.

견해1. 왕은 葛文王만을 지칭한다

견해2. 이들 7명 모두를 지칭한다

금관총 대도 명문에서의 ‘奈斯智王’은 ‘奈斯智(이름) + 王’의 구성으로 이용현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냉수리비의 ‘喙/ 夫智/王 · 乃智/王’과 천전리

서석의 ‘徙夫智/王’과 동일한 표기라고 한다. 냉수리비의 王은 소지왕, 눌지왕으로 간주되고 있고, 천전리 서석의 사부지는 봉2의 인물과 동일인이다.¹⁵⁾ 그러므로 이용현은 ‘尔斯智王’은 매금왕이나 갈문왕으로 해석할 수 있고, ‘此七王等’에 대한 해석에서 견해2를 수용한다면 주류부인 탁부나 사탁부의 고위자이거나 비주류부의 부장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전제로 ‘尔斯智王’의 가계를 찾아본 결과 매금왕과 갈문왕의 족보에서 찾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서술하며 주류부인 탁부나 사탁부의 고위자 혹은 비주류부의 부장 중 한 사람일 결과가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十’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숫자로 보기보다는 도교적인 주술적 성격으로 이해하여 금관총 명문대도는 ‘尔斯智王’을 대상으로 한 주술적 의례를 위해 제작, 사용된 것으로 주장했다.

15) 이용현(2014), 앞의 논문,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 尔斯智王 명문이 확인된 K618과 기타 명문이 확인된 경주 352



먼저 대도에 새겨져 있는 ‘尒斯智王’ 표기의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尒는 爾의 약자로 신라 금석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자인데 포항 冷水里新羅碑(503년)의 ‘喙/尒夫智/壹干支’와 울진 鳳坪里新羅碑(524년)의 ‘悉尒智/奈麻’에도 보이는 문자이다. 斯는 신라 금석문에 보이는 인명에 많이 사용되는 문자이다. 포항 中城里新羅碑(501년)의 ‘斯德智’(斯는 초서), 냉수리 비의 ‘斯夫智王’(斯는 초서)·‘斯德智/阿干支’의 예가 있다. ‘智’는 口가 ▽의 형태를 띠고 曰이 크고 오른편으로 치우쳐 있는 전형적인 신라 금석문의 서체이다. ‘智’는 신라 금석문에서 국왕을 포함한 상위계층의 남성에게 주로 사용한 존칭 어미이다. 異斯夫智나 居柒夫智의 예로 보아 夫, 夫智와 동일한 존칭어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尒斯智王’은 尒斯(이름)/智(존칭)/王(직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금관총 환두대도의 명문 ‘尒斯智王’은 중고기 신라 비문에 나타나는 인명에 대한 표기법인 관직명-출신지명-인명-관등명의 순서와 다르게 출신지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¹⁶⁾ 이처럼 국내에 남겨진 신라 금석문을 토대로 ‘尒斯智王’의 표기법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정작 ‘尒斯智王’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6) 국립중앙박물관(2014), 앞의 책, p.6.

<그림 2> K618에서 확인된 ‘尔斯智王’ 명문



2. 『日本書紀』 속 ‘尔斯智王’

그렇다면 국내자료가 아닌 『日本書紀』에서는 ‘尔斯智王’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계체천황 23년 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중략)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소집하였다. 신라왕 좌리지(佐利遲)는 구지포례(久遲布禮)<어떤 책에서는 구례이사지우나사마리(久禮爾師知于奈師磨利)라고 하였다>를 보내고 백제는 은솔(恩率) 미등리(彌藤利)를 보내어 모야신이 있는 곳에 가게 하였으며, 두 왕이 직접 오지 않았다.

여기서 신라왕 좌리지(佐利遲)는 법흥왕의 이름인 원종 혹은 당시 신라의 중신이었던 철부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고, ‘구례이사지우나사마리’라는 인명은 ‘久禮爾師知’와 ‘于奈師磨利’ 두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¹⁷⁾ ‘久禮爾師知’라는 이름을 앞서 설명했던 신라 인명 표기 식으로 살펴본다면 久禮(관직 혹은 출신지)/爾師(인명)/知(존칭의 의미)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존칭의 의미로 사용된 知와 ‘尔斯智王’의 智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日本書紀』를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중략) 이로 말미암아 신라는 다시 상신(上臣)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신라는 대신을 상신이라고 한다. 어느 책에서는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이라고 하였다.>를 파견하였으며, 무리 3천명을 이끌고 칙명을 듣기를 청하러 왔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 혹은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은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智와 知 모두 신라 금석문의 특징인 존칭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久禮爾師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爾

17) 연민수 외 6명(2013), 『역주 일본서기2』, 동북아역사재단, p.290.

師'이다. 신라 인명 표기법상 이름의 위치라고 짐작 할 수 있는데, '尔'는 '爾'의 약자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師'라는 글자는 문헌 자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인현(慈仁縣)은 본디 노사화현(奴斯火縣)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삼국사기』 권34)

자인현(慈仁縣). 본래 신라 노사화현(奴斯火縣)으로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장산군(獐山郡) 영현(領縣)으로 삼아 현종(顯宗) 9년에 내속(來屬)하였다.(『고려사』57, 지리2)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내용은 극히 단순하여 노사화현(奴斯火縣)이 왜 자인현(慈仁縣)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서는 같은 지명을 통칭하는 말로 기화(其火)라는 말을 쓰고 있다. 『三國史記』나 『高麗史』보다 뒤에 나온 기록이라고 하여 기화(其火)가 노사화현(奴斯火)보다 훨씬 뒤에 붙여진 지명이라고는 하기 힘들고 또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奴斯-火', '其-火' 같이 두 개의 형태로 분석되는데 여기 나타나는 '奴斯'라는 지명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다.

유성현(儒城縣), 본디 백제의 노사지현(奴斯只縣)이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삼국사기』 권36, 지리3)

'奴斯只' 역시 '奴斯-只'의 형태로 분석되는데 이를 '奴斯火'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奴斯 + 火 = 慈仁

奴斯 + 只 = 儒城

백제어에서 지(只)는 ‘기’로 읽혔고 성(城)을 나타내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대응관계가 자연스러우며¹⁸⁾, 나머지 奴斯와 儒의 대응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奴斯’의 ‘斯’는 ‘叱’로 쓰인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奴斯只와 奴叱只가 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다른 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성현(儒城縣). 본래 백제의 노사지현(奴斯只縣) 【사(斯)는 질(叱)로도 씀.】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비풍군(比豐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에서는 옛 이름 그대로 내속(來屬)하였다. 온천(溫泉)이 있다.¹⁹⁾

그렇다면 ‘儒’의 음가는 ‘奴斯’ 혹은 ‘奴叱’로써 표기할 수 있다. 고구려 2대왕 ‘儒理’를 ‘奴閭’, ‘累利’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儒’의 음가는 현대의 ‘유’에 가깝기보다는 고대의 ‘누’ 혹은 ‘루’에 가깝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옛 어원이 ‘눗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斯’, ‘叱’은 받침 ‘시옷’을 나타내는 음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고대 ‘斯’, ‘叱’이 받침 ‘시옷’을 나타내는 이두식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빈번하게 찾을 수 있다. 국보 196호인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花嚴經』의 권말에 있는 발문에 의하면, ‘종이를 만든 사람은 구질진혜현황진지로 벼슬은 나마’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¹⁾ 하지만 구질진혜현(仇叱珍兮黃)은

18) 김중택(2000), 「경산지역의 옛 지명 연구」, 『경산문화연구』, 경산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

19) 儒城縣, 本百濟奴斯只縣【斯, 一作叱】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比郡領縣, 高麗仍舊名, 來屬, 有溫泉. (『고려사』 권 10, 지리1)

20) 김중택(2000), 위의 논문, p.18~20.

21) 紙作人仇叱珍兮黃珍知柰麻.

『삼국사기』 『고려사』의 지리지에 나타나지 않는 지명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斯’와 ‘叱’의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에 부합하는 지명을 찾을 수 있었다.

진원현(珍原縣)은 본래 백제(百濟)의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²²⁾

진원현(珍原縣)은 본래 백제(百濟)의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감성군(岬城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高麗)에 이르러 <나주목에> 내속(來屬)하였다. 명종(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²³⁾

진원현은 현재 전남 장성군 진원리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표기되었던 진원현의 옛 이름은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이었음을 알 수 있다. ‘斯’와 ‘叱’이 같은 받침 ‘시옷’의 음가를 표기하는 방법임을 감안할 때, 구질진혜현(仇叱珍兮黃)과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은 같은 지명을 표기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는 ‘丘斯’와 ‘仇叱’이 ‘珍’으로 표기가 바뀌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珍의 음가가 구슬=구사=구수=구시로 읽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기법으로 기록된 지명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옥마현(玉馬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고사마현(古斯馬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봉화현(奉化縣)이다.²⁴⁾

22) 珍原縣, 本百濟丘斯珍兮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삼국사기』 잡지5, 지리3)

23) 珍原縣本百濟丘斯珍兮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岬城郡領縣. 至高麗, 來屬. 明宗二年, 置監務.(『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여기서는 ‘古斯’가 ‘玉’으로 표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구슬’을 표기하는 음가로 ‘고사’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명을 찾아보면 ‘구수마을’²⁵⁾, ‘구수고개’²⁶⁾ ‘구숫골’²⁷⁾, ‘구수메’²⁸⁾ 등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어 ‘斯’와 ‘叱’이 같은 음가를 표기했다는 또 다른 근거로 들 수 있다.

『일본서기』의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 혹은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을 신라 금석문의 특징으로 봤을 때 ‘伊叱夫禮’는 이름을 표기한 것이다. 위의 사례를 참고하면 ‘伊叱夫禮’는 ‘잇부례’로 읽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서기』의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 혹은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은 『삼국사기』의 이사부(異斯夫)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이사부 열전에서 異斯夫를 ‘苔宗’이라고도 표기할 수 있다는 문헌과 비교하면 ‘異斯’와 ‘伊叱’이 ‘苔’와 같은 뜻이라는 것이 짐작 가능하다. 따라서 ‘이끼’를 뜻하는 ‘苔’의 고어인 ‘잇’ 소리를 ‘異斯’와 ‘伊叱’로 표현한 것이다. 異斯夫의 실제 고대 음가는 ‘잇부’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지명 표기 뿐 아니라 인명 표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신라 내물 마립간의 삼남, 눌지 마립간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미사흔(未斯欣)의 경우 『삼국사기』에서 ‘未斯欣’으로 표기되고, 『삼국유사』에서는 동일인물을 ‘未叱希’라 표기하며, 『일본서기』에서는 미질허지벌한(微叱許智伐旱)과 미질한기(微叱旱岐)라 표기한다. 『삼국유사』에서 동일인물을 ‘美海’ 혹은 ‘美欣’이라고도 표기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未斯欣’, ‘未叱希’, ‘微叱許

24) 玉馬縣, 奉高句麗古斯馬縣, 景德王改名. 今奉化縣.(『삼국사기』 권35, 잡지4)

25) 전북 남원.

26) 전북 고창.

27) 구슬동, 강원 정선.

28) 玉山마을, 충남 부여.

智伐旱’, ‘微叱旱岐’ 에서의 ‘斯’와 ‘叱’이 모두 같은 받침 ‘시옷’의 음가를 나타내는 표기로 실제 음가는 ‘밋해’ 또는 ‘밋흔’에 가까웠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인물 표기뿐 아니라 신라의 벼슬 표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신라 군주 고유의 칭호 중 하나인 ‘이사금’의 경우 『삼국사기』에서 ‘尼師今’, 『삼국유사』에서는 ‘尼師今’, ‘尼叱今’, 또는 ‘齒叱今’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유리 이사금 즉위 기사를 살펴보면²⁹⁾ 석탈해가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치아가 많다고 하니 떡을 물어 시험해보자’는 제안을 하여 유리와 탈해가 서로 떡을 물었는데, 유리의 치아가 많았으므로 그가 왕위에 오르고 ‘이사금’이라 칭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사금’의 표기법과 신라본기의 기록을 참고한다면 ‘尼師今’, ‘尼叱今’의 ‘師’와 ‘叱’ 역시 받침 ‘시옷’의 작용을 하여 ‘닛금(혹은 잇금)’으로 읽었을 것이며, 그 뜻 표기로 ‘齒叱今’이라는 표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斯’와 ‘叱’을 받침 ‘시옷’의 음가를 나타내는 표기로 사용하여 ‘뜸’을 ‘잇’으로 읽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고대 자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중종 22년(1527년)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는 한문자를 언문으로 음가를 표기하였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편이다. 이 자료에서 ‘이끼’를 뜻하는 한자를 표기한 방법을 찾아보면 ‘이끼’를 뜻하는 한자인 莓, 苔, 薄, 蘚을 모두 ‘잇’이라는 음가로 표기하고 있다.³⁰⁾ 고대 신라부터 이끼를 ‘잇’이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졌다는 근거가 된다.

29) 『삼국사기』 卷1, 『新羅本紀』 제1 1年 秋九月.

30) 『訓蒙字會』 상권 8장 뒷면.

못하고 신라에 항복한 것으로 이해되며³¹⁾, 이는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 혹은 이질부례지나말(伊叱夫禮知奈末)’이 신라 장수 異斯夫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더욱 뒷받침 하고, 더 나아가 ‘尔斯智王’이라는 글귀를 해석할 때, ‘잇지왕’으로 음독하여 異斯夫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Ⅲ. ‘尔斯智王’을 통한 금관총의 연대 재설정

이상의 추론은 모두 『日本書紀』 등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다. 국내 문헌 자료에 나오지 않았던 ‘尔斯智王’을 『日本書紀』의 기록을 바탕으로 異斯夫라는 결론을 내었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신라고분 편년 작업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금관총 발굴 보고서 이후로 수많은 고고학적 분석과 논문이 등장하여 신라고분의 편년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우선 그것을 토대로 현재까지 정의된 금관총의 연대를 확인하겠다.

1. 금관총의 연대 추정

31) 전덕재(2014), 「異斯夫의 家系와 政治的位相」,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1921년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금관총 발굴이 시작된 지 2년 뒤인 1923년에 금관총 발굴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미야케 요산[三宅與三]의 발견 이후 보고를 받은 경주경찰서장 이와미 히사미쓰[岩見久光]는 곧바로 경주에 사는 총독부 박물관 촉탁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에게 연락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유물이 대단히 많았으므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경주보통학교장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와 고적보존회 촉탁 와타리 후미야[渡理文哉]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9월 27일부터 유물 채굴에 종사하고 27일과 28일 양일간 노출된 동반부(東半部)의 부장품을 꺼냈고, 29일에는 관내의 주요부를 조사해서 각종 귀중한 유물을 발굴했으며, 30일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끝으로 작업을 완료했다.³²⁾ 유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발굴을 급히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전문 고고학자가 입회하지 않고 나흘 만에 금관총 발굴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금관총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경상북도 도청에 전해지자 도지사인 이를 총독부에 바로 보고함과 동시에 경상북도 촉탁인 하리가이 리헤이[針替理平]를 파견해 발굴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총독부에서는 고적조사회 간사인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治郎]가 박물관 촉탁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를 경주로 급파해 발굴과 유물조사를 하도록 명했다. 하리가이는 28일 현장에 도착하여 다음날까지 발굴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오가와를 때를 맞추지 못해 발굴이 이미 끝난 이틀 뒤인 10월 2일에 경주에 도착하여 충분한 조사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후 경주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물을 촬영하여 수량과 내용을 확인하니 도저히 단독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여 경주에서 발굴된 유물을 경성으로 옮

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11), 앞의 책, p.28.

겨 조사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금관총 유물은 현장에서 수습 후 경주경찰서로 옮겨졌고 다시 경주고적보존회로 옮겨진 후 최종적으로 경성에서 교토제국대학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조선총독부 직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리 되었다. 유물 정리 작업은 1922년 4~6월 우메하라 스에지를 중심으로 총독부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사진기사 사와 슈이치[澤修一]에 의해 경성에서 시작되었다. 1922년 10월에는 교토제국대학 하마다 고사쿠 교수와 시마다 사다히코[島田貞彦] 조수가 방문하여 금관총 유물을 조사했다. 1923년 5월에도 우메하라 스에지가 오가와 게이키치, 고이즈미 아키오, 간다 쇼조와 함께 유물을 조사했고, 1923년 가을에도 우메하라 스에지가 유물을 조사했으며, 1924년 금령총과 식리총 조사때도 금관총 유물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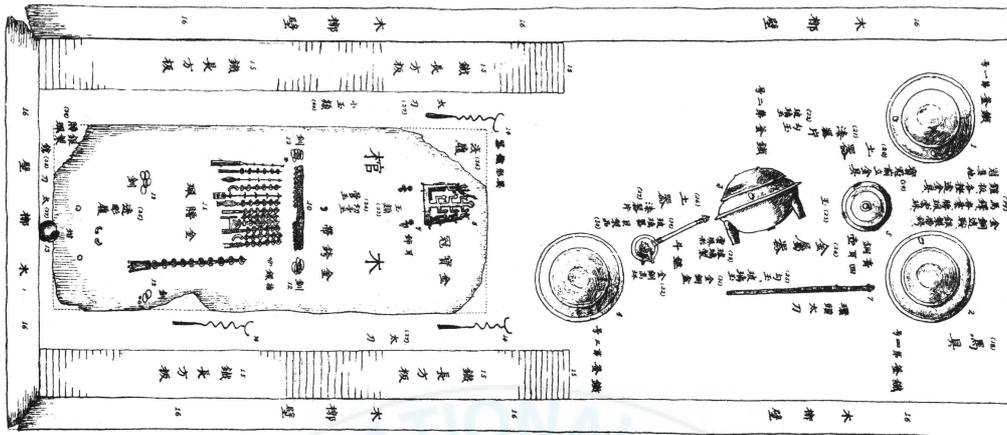
우메하라 스에지는 이 기간동안 금관총을 조사한 내용을 조사 카드 기록으로 남겼고, 이 기록을 기초 자료로 하여 금관총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부분 우메하라 스에지가 경성에 출장와서 유물을 정리하며 관찰한 것을 도면과 사진, 원고로 남긴 것이다. 우메하라 스에지는 이 기록을 교토로 가져갔고 이것을 토대로 보고서 간행 작업을 준비했다.

이후 총독부 주관으로 관련 연구가 계속되어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는데, 보고서는 우메하라 스에지 등에 의해 교토제국대학에서 편집되었고 교토의 지교도[似玉堂]라는 회사에서 인쇄되었다. 현재 일본 교토대학 문학부 고고학 연구실에 당시 보고서를 편집한 자료가 남아있어 편집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24년 5월에 보고서 본문 상책이, 9월에 도판 상책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하책들은 바로 이어서 간행되지 못하고 1928년 3월에야 보고서 도판 하책이 발행되었으며 본문 하책은 결국 발간되지 못했다. 본문 하책을 대신하여 1932년 본문 하책에 해당하는 일

부 내용으로 하마다 고사쿠가 재단법인 경주고적보존회의 지원을 받아 『慶州の金冠塚』을 발행했다. 보고서 도판 하책이 4년 뒤에 발간된 이유는 우메하라 스에지가 1925년 12월부터 유럽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이며, 조선총독부의 예산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관총 발굴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부장되어 있던 면적도 넓지 않아 무덤 구조와 유물 출토 상태에 대해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없어 당시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억과 소견을 바탕으로 고분의 구조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보고서에는 모로가 히데오의 ‘각서’와 오사카 긴타로의 ‘소견’이 등장하며, 특히 금허리띠에 대해서는 모로가 히데오가 노지마 마사루에게 부탁하여 그린 그림, 이와미 서장이 직무상 필요로 요시다 순사 부장에게 그리게 한 그림, 와타리 후미야 경주고적보존회 서기가 그린 그림이 등장한다. 하지만 모두 유물의 수량과 위치 관계에서 큰 차이가 발견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유물의 출토 상태를 복원해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금관총 발굴 당시 도면



圖略置配物遺塚冠金 圖四第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발견은 신라고분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큰 계기를 마련했다. 일제는 금관총 발견 이후 신라고분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라 무덤의 구조나 유물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해방 이후에는 금관총에 대해서 주로 무덤의 축조 연대와 주인공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문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대 사회의 사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의 방법으로 무덤의 연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주인공을 찾는 작업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금관총의 축조 연대에 대해서는 1972년 이식을 중심으로 통계학적 방법으로 신라 적석목곽묘를 편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³³⁾ 이에 따르면 금관총의 축조 연대를 5세기로 규정하였다. 1979년에는 토기 편년에 의한 신라 적석목곽묘의 서열을 정하는 시도가 있었는데³⁴⁾, 여기서는 금관총이 480~500년 사이에 축조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1992년에는 묘곽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 적석목곽묘의 편년이 제시되었는데³⁵⁾, 금관총의 축조시기는

33) 伊藤秋男(1972), 「이식의 형식학적 연구에 기초한 한국고신라시대의 고분편년에 관한 일시안」, 『조선학보』, 조선학회.

34) 藤井和夫(1979), 「경주고신라고분편년시안」 『神奈川考古』, 神奈川考古同人會.

450~480년 사이라고 주장하였다. 1998년에는 경산 임당 고분의 발굴 경험에 의해 신라 적석목곽묘를 편년한 가설이 나왔다.³⁶⁾ 금관총은 5세기 3/4분기로 보는 입장이었다.

2000년은 신라고분을 8기로 나누어 연대를 부여한 견해도 있었다.³⁷⁾ 금관총의 연대는 5세기 4/4분기였다. 2004년은 금공품을 대상으로 신라고분의 편년을 규정한 연구가 나왔다.³⁸⁾ 금관총은 서봉총, 식리총과 같이 5세기 4/4분기였다. 2006년에는 신라와 가야에 대한 고분 편년안이 나왔으며³⁹⁾, 금관총은 5세기 4/4분기라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2007년 신라와 가야의 중요 고분에 대한 편년안이 제시되었다.⁴⁰⁾ 여기에 따르면 금관총은 황남대총북분, 식리총과 함께 5세기 4/4분기였다.

제시된 자료들과 같이 대부분의 연구자가 토기 또는 귀걸이와 같은 유물 분석을 통해 황남대총보다 늦게 축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황남대총 - 금관총 - 천마총’ 순으로 상대편년 하였는데, 이 상대편년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절대편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해방 이후 대다수의 연구자는 금관총을 475~500년 사이에 축조된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다른 연구자는 이보다 좀 더 빨리 축조된 무덤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5세기 4/4분기에 축조된 무덤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일제강점기 금관총 유물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쓴 교토제국대학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교수는 금관총은 현 일본 시가현[滋賀縣] 가모이나리아마[鴨

35) 최병현(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36) 김용성(1998),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 춘추각.

37) 早乙女雅博(2000), 『조선반도의 고고학』, 同成社, p.218.

38) 이한상(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39) 박천수(2006), 「신라 · 가야고분의 편년」, 『일한고분시대의 연대관』, 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 외.

40) 김두철(2007), 「삼국 · 고분시대의 연대관(Ⅱ)」, 『한일 삼국 · 고분시대의 연대관(Ⅱ)』, 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 외.

稻山] 고분과 출토 유물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6세기 초에 축조된 무덤으로 판단하고, 주인공은 자비왕(재위 458~479) 또는 지증왕(재위 500~514) 등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추정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견해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糸斯智王’명 대도의 발견 이래 금관총 재발굴 과정에서 금관총의 피장자가 착장한 유물을 통해 금관총의 주인공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보고서를 따르면 금관총 피장자는 굵은 고리 귀걸이를 하고 큰칼을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금관총 피장자는 마립간 혹은 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금관총의 규모가 왕릉급보다 작기 때문에 왕릉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2016년 10월 21일 진행된 <마립간의 기념물 : 적석목곽분> 학술 심포지엄에서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발표한 「金冠塚 被葬者の性格 再考」에서 금관총의 지름이 마립간의 능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왕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장품으로는 피장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금관총의 피장자를 남성으로 추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결과 ‘糸斯智王’은 마립간이 아니라 육부의 최고위급 남성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좀 더 힘을 얻은 상황이다.⁴¹⁾

조선총독부의 발굴 이래로 현재까지 금관총을 비롯한 신라고분의 편년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관련 문헌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라고분의 특성상 고고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추측하는 금관총의 편년은 5세기 4/4분기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였다.

41) 윤상덕(2016), 「金冠塚 被葬者の性格 再考」, 『마립간의 기념물 : 적석목곽분』, 국립경주박물관 심포지엄.

2. 異斯夫와 ‘兪斯智王’

그렇다면 필자가 ‘兪斯智王’의 유력한 인물로 추측하고 있는 이사부(異斯夫)의 활동연대는 언제인가? 이사부의 생몰연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이사부가 처음 역사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三國史記』에서 찾을 수 있다.

悉直州를 설치하고 異斯夫로 하여금 軍主로 삼았다. 군주의 이름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⁴²⁾

이는 지증왕 6년인 505년에 단행한 조치이다. 異斯夫가 언급되는 마지막 기록은 진흥왕 23년인 562년이니⁴³⁾ 이사부의 활동시기는 6세기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6세기에 활동했던 異斯夫가 5세기 4/4분기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되는 금관총의 피장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兪斯智王’이 異斯夫라

42) 『三國史記』 卷4, 智證麻立干 6年 2月條.

43) 23년(562) 가을 7월에 백제가 변경 지방의 민가를 침략하므로, 왕이 군사를 내어 막아서 1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9월에 가야가 배반하므로 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이를 치게 하고, 사다함(斯多含)을 그 부장(副將)으로 삼았다. 사다함이 3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먼저 달려 전단문(檀門)에 들어가서 흰 깃발을 세우니, 성중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치니 일시에 모두 항복했다. 공로를 논하매, 사다함이 제일이었으므로 왕이 좋은 논밭과 포로 2백 명을 상주니 사다함은 세 번이나 사양했다. 왕이 굳이 주니, 이에 포로는 받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고, 논밭은 싸운 병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랏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三國史記』 卷4.

는 견해를 보충하는 것과 더불어, ‘兪斯智王’을 토대로 하여 금관총의 연대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兪斯智王’이 異斯夫라면, 금관총이 만들어졌을 때, 이사부는 ‘兪斯智王’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사부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부와 관련된 연구는 전부터 많이 논의되었는데⁴⁴⁾, 선행 연구에서 조사한 이사부의 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이사부열전에 의하면 이사부는 나물왕의 4세손이라고 전한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삼국사기』 열전에서 등장하는 나물왕의 후손을 살펴보면 이사부외에 거칠부(居柒夫)가 나물왕의 5세손이고, 사다함(斯多含)은 나물왕의 7세손으로 나오며, 그 밖에 대세(大世)가 나물왕의 7세손으로⁴⁵⁾, 김흠운(金歆運)은 나물왕의 8세손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⁴⁶⁾ 위에 언급한 인물 중에서는 거칠부와 사다함이 이사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⁴⁷⁾

『삼국사기』 거칠부열전에서는 “居柒夫는 신라 사람으로 성은 金氏이고 나물왕의 5세손이며, 그 조부는 角干仍宿이고, 부는 伊滄勿力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⁴⁸⁾ 이사부가 나물왕의 4세손임을 비추어 볼 때 이사부와 거칠부는 숙질(叔姪)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사람은 똑같이 나물왕의

44) 강봉룡(2010), 「이사부 생애와 활동의 역사적 의의」, 『이사부와 동해』, 한국이사부학회.

이명식(2004), 「新羅 中古期の 將帥 異斯夫考」,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4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平王 9년조.

46) 金良相은 奈勿王의 10세손, 金敬信은 奈勿王의 12세손, 叔明은 奈勿王의 13세손이다. 『三國史記』 卷9, 宣德王 즉위조, 卷10 元聖王 즉위조 및 哀莊王 6년조 참조.

47) 이명식(2004), 앞의 논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48)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智證王 즉위조.

방계혈족(傍系血族)으로 국왕의 최측근세력임을 알 수 있다. 이사부가 지증왕대에서 진흥왕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거칠부가 진흥왕에서 진지왕대까지 활동한 인물임을 감안해서 이들과 국왕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卷4, 지증왕 즉위조에서 “왕의 성은 金氏이고, 이름은 智大路로서 나물왕의 曾孫으로 翳寶葛文王의 아들이고, 소지왕의 再從弟다.”라고 기록된다.⁴⁹⁾ 이 기록에 따르면 지증왕과 이사부는 叔姪관계가 되며, 이후 지증왕 시기에 이사부가 실직주 군주가 되고, 뒤이어 하슬라주 군주가 되면서 우산국을 정벌하는 등 지증왕의 치세를 빛내는 작업에 앞장선다.

『삼국사기』 卷4, 법흥왕 즉위조에서는 “왕이 지증왕의 元子이다”는 기록이 있다.⁵⁰⁾ 기록에 따르면 법흥왕은 나물왕의 4세손이 되고 이사부와는 같은 항렬이 된다. 하지만 법흥왕 시기에는 이사부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법흥왕과 이사부로 대표되는 혈족간의 왕위 계승을 두고 갈등이 있어 이사부가 실권에서 밀려났다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⁵¹⁾

『삼국사기』 卷4 진흥왕 즉위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진흥왕의 즉위 당시 나이가 7세이고, 왕이 어려서 즉위하였으므로 왕태후가 섭정했다고 한다.⁵²⁾ 뒤이어 진흥왕 2년(541년)에 이사부를 병부령에 임명하여 내외병마사를 맡겼다는 사실을 보면⁵³⁾, 이사부가 사실상 어린 진흥왕을 대신해서 정치 일선에 나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진흥왕 6년에 왕에게 국사를 편찬할 것을 건의하는 등 군사적 업무 이외에 일반 정치 분야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나물왕의 후손인 사다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삼국사기』 卷44, 사다함열전에는 “斯多唵이 眞骨의 신분으로 나물왕의 7세손이다”는 기록이

4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智證王 즉위조.

5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法興王 즉위조.

51) 이명식(2004), 앞의 논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5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즉위조.

5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2년조.

있다.⁵⁴⁾ 이사부가 나물왕의 4세손이므로 사다함은 이사부보다 3세대 아래가 되는데, 둘 다 직계후손으로 기록되지 않아 나물왕의 방계후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사부가 사다함과 같이 대가야를 정벌했다는 기록을 참고한다면,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로 임명받은 때가 지증왕 13년(512년)이고 대가야 정벌이 진흥왕 23년(562년)이므로 50년의 기간이 존재한다. 이사부가 군주로 임명받은 때를 20대라고 한다면 대가야원정 때는 70대가 되고, 이 때 사다함의 나이는 15세 혹은 16세이다.⁵⁵⁾ 이 당시 이사부의 직책은 원수(元帥), 사다함은 귀당비장(貴幢裨將) 혹은 부장(部將)으로 기록되어 있다.⁵⁶⁾

나물왕의 가계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타난 역대왕들의 즉위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눌지왕은 나물왕의 아들이고 자비왕은 눌지왕의 아들이므로 나물왕의 손자가 된다. 또 소지왕은 자비왕의 아들이므로 나물왕의 증손이며, 지증왕은 소지왕의 재종제(再從弟)라 하였으므로⁵⁷⁾ 나물왕의 증손이 된다. 법흥왕은 지증왕의 아들이므로 나물왕의 4세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흥왕과 이사부는 형제관계이며, 법흥왕과 거칠부는 숙질관계가 된다.

그런데 나물왕과 앞에서 열거한 왕들과의 관계는 손자 혹은 증손자 등으로 표현하면서도 이사부, 거칠부에 대해서는 4세손, 5세손 등으로 기록하여 차이를 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부와 거칠부가 傍系血族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⁵⁸⁾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이사부는 성이 김씨이고

54) 『三國史記』 卷44, 列傳44, 斯多含條.

55) 『三國史記』 卷44, 列傳4, 斯多含條.

56) 『三國史記』 卷4, 眞興王 23년조에는 部將이며, 卷44, 斯多含列傳에는 貴幢裨將으로 나타난다.

57)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智證王 즉위조.

58) 이명식(2004), 앞의 논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나물왕의 4세손으로 신라의 왕족이었다. 그가 ‘나물왕의 몇 세손’으로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세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그의 신분은 왕족에 비견될 만큼의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三國遺事』 卷1 奇異 미추왕 죽엽군조에 미추왕이 김알지의 7세손이라는 기록이 있고, 김알지 탈해왕 대조에 미추왕의 계보가 ‘關智 - 熱漢 - 阿都 - 首留 - 郁部 - 俱道(혹은 仇刀) - 未鄒’ 라는 기록이 전해지는 것을 따르면 알지가 1세가 되고 구도는 알지의 6세손이 된다. 이는 ‘世孫’의 기준이 되는 인물을 1세로 추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서 수로왕이 김유신의 12세조(世祖), 구해왕이 수로왕의 9世孫이라는 기록 등 기준이 되는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긴 하지만, 대체로 ‘몇 세손’이라고 하였을 때는 기준이 되는 이를 포함하고, ‘몇 대조’라고 하였을 때는 기준이 되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을 염두에 둘 때,⁵⁹⁾ 이사부는 나물왕의 증손자로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사부의 행적을 쫓아가보면 이사부가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실직주 군주로 임명된 지증왕 6년(505년)이다. 마지막으로 이사부가 등장하는 기록이 50년이 훌쩍 지난 562년이라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적어도 이사부가 군주로 임명되었을 시기는 20대에서 30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사부의 정확한 생몰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에 한 지역의 군주를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당대 최고의 진골 귀족이라는 배경도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년 뒤인 512년에는 이찬의 관직으로 하슬라주 군주가 된다. 이찬은 신라의 17관등 가운데 두 번째 등급이며 성골이나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등급

59) 노태돈(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p.67.

이었다. 여전히 젊은 나이로 추측되는 시기에 이찬에 진급하는 것은 물론, 이후 잘 알려진 우산국 정벌을 단행하여 그의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 이후 『일본서기』에서 이사부가 등장할 때 언급되었던 上臣이라는 호칭은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上大等を 지칭하는 말이라 전하는 것을 생각할 때⁶⁰⁾ 이찬부터 상대등까지의 고위 관직을 겸임한 이사부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후 541년 진흥왕 2년에는 국방을 총괄하는 병부령으로 임명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군부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우산국 복속 이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동안 꾸준히 군사적인 입지를 다져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4년 뒤 진흥왕 6년(543년)에는 이찬의 지위로 왕에게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건의하여 진흥왕이 대아찬 거칠부로 하여금 신라 최초의 정사인 『國史』를 편찬하게 한다. 이사부가 군사적인 입지만을 구축한 것 뿐 아니라 정계적인 위치까지 다져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후에도 전장에서의 활약이 꾸준히 계속되었는데 진흥왕 11년(550년) 3월 고구려와 백제가 도살성과 금현성에서 싸우다 서로 지치자 진흥왕이 이사부로 하여금 고구려와 백제 군사를 모두 치게끔 하여 두 성을 차지하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신라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단순계산으로 이사부가 실직주의 군주가 되었던 시기를 20살이라고 가정한다면, 도살성과 금현성 전투에서 이사부의 나이가 65세라는 이야기가 된다. 당시의 평균 연령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의 이사부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인데도 군사적 부분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 『三國史記』 卷38, 雜誌 第7 - 상대등(上大等)—혹은 상신(上臣)이라 한다. 법흥왕 18년(531)에 처음으로 두었다.

이사부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 진흥왕 23년(562년)에는 가야의 세력이 금관가야를 시작으로 사라져가고 있을 무렵, 진흥왕은 유일하게 남은 대가야 정복을 위해 이사부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 것을 명한다. 이사부는 대가야를 정복하고 가야는 완전히 멸망하여 신라의 영토가 된다. 이때의 이사부는 70대를 상회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야의 정복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을 보면, 이사부의 입지는 세월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한다면 이사부는 나물왕의 4대손이라는 혈통과 더불어 많은 나이에도 전장을 누빈 신라 최고의 백전노장이었다. 김유신과 비교해서도 더 많은 시간을 전장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어린 나이에 한 지역의 군주로 부임하여 우산국을 정복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세우고 세월이 흐른 후에도 조정이나 전장에서 여전한 과급력을 미치며 신라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있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이사부의 생애를 돌아보았을 때, 이사부는 신라 내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부는 스스로를 ‘奈斯智王’이라 칭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부를 ‘奈斯智王’이라 칭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근거는 어떠한 것인가?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서 신라 왕명이 전하는 기록으로 냉수리비가 있다. 냉수리비에는 신라왕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다. ‘斯夫智王’, ‘乃智王’이 나오며 이들은 ‘前世二王’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보아 냉수리비가 세워진 503년 무렵에는 생존해 있지 않은 이전의 왕을 지칭하고 있다. 이중에서 내지왕은 눌지왕의 또 다른 왕명인 내지왕(內只王)과 발음이 같아 눌지왕을 나타내 사부지왕은 그 이전의 왕인 실성왕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⁶¹⁾ 냉수리비에는 또 다른 왕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 ‘此

七王等共論’에서 七王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그 앞에 기록된 “至都盧/葛文王, 斯德智/阿干支, 子宿智/居伐干支, 尒夫智/壹干支, 只心智/居伐干支, 頭腹智/干支, 暮斯智/干支”의 7인을 지칭하고 있다. 갈문왕이나 간지를 칭하고 있는 인물을 모두 七王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울진봉평신라비에서 ‘干支’라는 표기를 칭하는 6부인이 보이는데, 이는 6부의 대표, 혹은 신라 최고위층을 干支라 칭했으며, 이후 ‘王’에 버금가는 호칭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을 추측하게끔 한다. 이는 ‘王’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신라의 마립간을 뜻하는 것이 아닌, 각 부의 최고위층[干支]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것과 같이 참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본서기』의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가 이사부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일본서기』에서는 干支를 旱岐 또는 旱支, 干岐로 표기하며 수장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가지 예로 『일본서기』 신공왕후편에 등장하는 미질기지파간기(微叱己知波干岐)는 신라 15대 나물왕(奈勿王)의 아들인 미사흔(未斯欣)⁶²⁾을 지칭한다. 여기서 파간기(波干岐)는 신라 17관등 중 제4위에 해당하는 파진찬(波珍澹)이다.⁶³⁾ 이후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박재상 설화부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미사흔의 표기는 미질허지벌한(微叱許智伐旱)과 미질한기(微叱旱岐)이다.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라 불린 이사부의 관등이 이찬(伊澹)이라는 것과 미사흔의 관등이 波珍澹인 것, 그리고 『일본서기』에서 이 둘의 관직표기를 간기(干岐), 혹은 한기(旱岐)라 표기하는 것을 볼 때 干岐 혹은 旱岐라는 표기는 신라 최고위층을 뜻하는 표현임이 확실하다.

61) 김재홍(2014), 「金冠塚 출토 ‘尒斯智王’ 銘 大刀와 피장자」, 『考古學誌』 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62) 未斯欣(?~433), 『삼국유사』에는 美海, 未叱喜라고 표기한다.

63) 연민수 외 6명(2013), 『역주 일본서기1』, 동북아역사재단 p.479.

또한 『일본서기』에서 가야 소국의 왕도 干岐라고 표시 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필자가 주장하는 이사부의 사례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예시가 바로 『일본서기』에서 탁순국의 왕으로 기록된 아라사등(我羅斯等)이다. 수인천황 2년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이라는 표현과 함께 의부 가라국왕(意富加羅國王)의 아들이 도노아아라사등(都怒我阿羅斯等)이고 다른 이름은 우사기아리질지간기(于斯岐阿利叱智干岐)라고 표기되어있다.⁶⁴⁾ 未斯欣과 微叱許智伐早, 微叱早岐이 같은 인물을 묘사하는 점, 阿羅斯等과 阿利叱智가 같은 인물을 나타내는 다른 표기라고 할 때 斯와 叱이 같은 음가를 표기한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야 소국의 수장을 干岐라 표기한 사실도 역시 확인 가능하다.

『일본서기』 흙명기 2년(541년) 4월과 5년(544년) 11월조에는 가야 소국의 대표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흙명기 2년 4월 백제의 성왕이 주최한 이 회의에는 安羅의 차한기(次早岐)⁶⁵⁾로 夷吞奚, 大不孫, 久取柔利 등이 등장하고,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⁶⁶⁾, 卒麻早岐⁶⁷⁾, 散半奚早岐⁶⁸⁾의 자식, 多羅의 下早岐 夷他, 斯二岐早岐⁶⁹⁾의 자식, 子他早岐가 참석하여 임나의 재건에 대해

64) 연민수 외 6명(2013), 앞의 책(역서), 동북아역사재단, p.370.

65) 早岐 다음가는 지위에 있었던 자에 대한 칭호로 下早岐와 같다. 夷吞奚, 大不孫, 久取柔利는 『日本書紀』 흙명천황 5년 11월조(544년)에 下早岐로 등장한다. - 연민수 외 6명(2013), 『역주 일본서기2』, 동북아역사재단, p.343.

66) 上首位을 早岐의 가신집단 우두머리에 대한 칭호로 보는 견해가 있다. 『日本書紀』 흙명천황 5년 11월조에는 上首位 다음에 있었던 자의 칭호로 여겨지는 二首位란 칭호가 보인다. 古殿奚는 『日本書紀』 계체천황 7년(513년) 11월조에 伴破의 既殿奚로 나온다. - 연민수 외 6명(2013), 앞의 책(역서), 동북아역사재단, p.343.

67) 卒麻는 현 경남 함양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삼국사기』 지리지의 ‘速舍郡’에 해당한다. 『日本書紀』 흙명천황 5년 11월조에는 卒麻君이 나온다. - 연민수 외 6명(2013), 앞의 책(역서), 동북아역사재단, p.343.

68) 散半奚는 현 경남 함천군 草溪 일대 지역이다. 『日本書紀』 흙명천황 5년 11월조에는 散半奚君이 나온다. - 연민수 외 6명(2013), 앞의 책(역서), 동북아역사재단, p.343.

69) 多羅는 현 경남 陝川 지역에 비정된다. 下早岐는 次早岐와 같다. 夷他는 이름이다. 斯二岐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辛爾縣으로 현 경남 富林面 新反里를

논의하는데, 여기에 참석한 가야 소국의 수장을 모두 旱岐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흠명기 5년(544년) 11월조에서도 安羅의 下旱岐 大不孫, 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의 아들, 多羅의 二首位 訖乾智, 子他旱岐, 久嵯旱岐 등이 백제에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가야 소국의 수장은 旱岐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卒麻나 斯二岐, 散半奚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장을 나타내는 旱岐라는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君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旱岐와 王의 표현이 병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540년대 후반에 건립된 단양적성신라비에서는 軍主와 干支의 상관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高頭林城에 軍主로서 喙部比次夫智阿干支와 武力智阿干支가 있었다고 전한다. 적성비가 부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軍主로 임명되는 귀족들의 신분이 干支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각 지역의 수장을 표현하는 干支가 중국식 표현인 王으로도 불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丕斯智王’이 신라의 국왕이라기보다 신라 최고위층인 ‘干支’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봤던 이사부의 생애를 뒤돌아 봤을 때 나물왕의 증손자이며, 왕족 출신의 진골귀족으로 상당히 젊은 나이에 軍主의 위치에 올라 말년까지 신라 권력 내부구조에 영향을 끼쳤던 이사부의 가계와 능력, 그리고 『일본서기』 및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서 나타나는 軍主와 干支의 상관관계, 그리고 냉수리비에 표기되었던 ‘此七王等’에서 ‘王’이 지칭하는 것이 단순히 마립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葛文王 혹은 軍主를 뜻할 수도 있다고 보는

가리킨다. 『日本書紀』 흠명천황 5년 11월조에는 斯二岐君이 나온다. - 연민수의 6명(2013), 앞의 책(역서), 동북아역사재단, p.343.

여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糸斯智王’은 異斯夫를 지칭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3. 금관총의 연대 재설정

가. ‘糸斯智王’ 명문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금관총의 고고학적 편년은 5세기 4/4분기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문헌자료에 기록된 이사부의 활동시기는 6세기이다. 고고학에서 편년한 금관총의 시기와 이사부의 활동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금관총의 피장자가 이사부라고 추측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糸斯智王’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오히려 이 명문의 발견과 분석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했던 신라고분의 절대편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고분 발굴에 있어서 고고학적 연구가 중점이 되었던 것은 고분의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문헌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출토된 유물의 형식과 자료를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분 내에서 확실한 문헌적 자료가 출현한다면 확실하게 그 무덤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고분의 피장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던 무령왕릉의 사례를 보면, 묘지석에 ‘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이라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기록은 『日本書紀』 무열천황 4년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도왕(嶋王)을 무령왕(武寧王)이라 하며 휘는 사마왕(斯麻王)이고, 곤지왕의 아들이며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마왕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⁷⁰⁾

현재까지 유일하게 무령왕릉이 피장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고분으로 남은 것도 확실한 문헌자료가 발견되었고, 그 근거를 『일본서기』를 비롯한 관련 사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확실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고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사례는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우총에서 발견되어 고구려와 신라의 활발한 교류를 알 수 있는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慶州 壺杆塚 出土 靑銅 ‘廣開土大王’銘 壺杆 - 약칭 호우명 그릇)를 들 수 있다.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호우명 그릇의 밑면에서 4행 4자씩 총 16자 형식으로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명문 ‘乙卯年國罌(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호우명 그릇이 광개토대왕을 기념하기 위해 을묘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광개토대왕릉비의 기록을 토대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박광렬의 연구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박광렬은 금관총의 연대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서봉총에서 출토된 은제합의 명문을 토대로 서봉총의 절대연대를 비정하는데, 은제합의 내면에 새겨진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 太王敬造合杆用三斤六兩’과 외면에 새겨진 ‘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中 太王敬造合杆用三斤六兩’을 토대로 연수 원년이 연호로 추측된다는 의견과 동시에 신묘년을 토대로 절대연대를 비정하기 위해 문헌자료와 비교해서 서봉총의 절대연대를 511년으로 주장하였다.⁷¹⁾ 상대편년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고고학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확실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절대연대를 비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70) 연민수 외 6명(2013), 앞의 책(역서), 동북아역사재단, p.253.

71) 최병현(2014),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금관총과 이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금관총의 피장자가 이사부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연구로는 최근 발표된 윤상덕 연구관의 「金冠塚 被葬者の 性格 再考」⁷²⁾를 들 수 있다. 금관총의 피장자는 남성으로 추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금관총의 규모가 왕릉급으로 비정되는 신라고분보다 작은 편이기 때문에 ‘糸斯智王’은 마립간이 아니라 육부의 최고위급 남성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糸斯智王’이 주류부인 탁부나 사탁부의 고위자 혹은 비주류부의 부장 중 한 사람일 결과가 더 높을 것이라는 연구결과⁷³⁾도 참고했을 때, 앞서 살펴본 이사부의 사회적 위치와 결부시킨다면 금관총과 이사부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확실한 연대를 비정하지 못해 상대편년만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신라고분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헌자료를 토대로 절대연대를 비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물론 그 문헌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고학적 관점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그동안 전개한 ‘糸斯智王’과 이사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지를 참고한다면, 금관총의 연대를 새롭게 비정할 수 있다.

나. 고고학적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糸斯智王’의 분석으로 보았을 때, 그가 지칭하는 것이 異斯夫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지 그가 금관총의 주인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의견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고분 출토 유물에는

72) 윤상덕(2016), 「金冠塚 被葬者の 性格 再考」, 『마립간의 기념물 : 적석목곽분』, 국립경주박물관 심포지엄.

73) 이용현(2014), 앞의 논문, 국립중앙박물관

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물이 있고 망자를 위해 추모자가 넣어 준 유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의 출토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금관총 유물은 급히 수습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출토 위치 등이 현장 사람들의 기억으로 복원되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糸斯智王’이라는 각인이 된 고리자루큰칼도 보고서 상책에 표기되는 출토 위치와 하마다가 쓴 『慶州の金冠塚』에 기술된 출토위치에 차이가 있다. 먼저, 금관총 발굴 보고서에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5) 관내 유물의 상태

관의 동반부는 최초로 유물이 채집된 곳으로 주로 부장품을 넣어둔 곳으로 생각되며 출토 유물이 가장 많다...(중략)... 원형이 거의 유지된 환두대도 한 자루는 자루 끝이 동쪽을 향해 남벽 쪽 가까이 묻혀 있었다.

(6) 관내 서부 유물의 상태

관의 양 측면 모두에는 대도류가 놓여있었고, 그 주변에는 옥류가 있었다...(중략)... 그런데 이와미 씨는 관 안에서 발견된 대도에 대해 관의 남쪽에서 출토된 것은 도자가 결합된 금동장 환두대도로 자루 끝이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고 서쪽에서 발견된 것은 은장이었다고 한다.

하마다의 『慶州の金冠塚』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금관총에서 다수의 도검류가 발견되었는데...(중략)... 발견자의 보고에 의하면 관의 동쪽 부분 초두의 남쪽에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는 환두대도가 한 자루, 관의 동쪽에는 도자를 덧붙인 금동으로 만든 환두대도, 서측에는

은으로 만든 환두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태도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제2의 금동작 소도부 환두태도(84.8cm)이다. 세 개의 고리고 삼엽형(일명 삼계환, 삼루환)을 구성한 환두 아래의 손잡이 부분은 파손되어서 확실하지가 않지만, 소도에서도 같은 모양의 연호문을 타출한 금동판을 합친 것에 불과했다. 고도는 손잡이 가장자리까지 만들었으며 제작은 태도와 같다. 칼집은 태도의 그것과 하나로 합쳐지고 또한 소도의 칼집 위에는 긴 봉상의 비녀 모양으로 생긴 것이 덧붙여 있다. 칼집 끝은 민무늬인데 어떠한 장식도 하지 않았다.

이것과 거의 똑같이 제작한 것으로는 금은작 소도부 삼엽형 환두태도가 있는데 칼집 끝은 결실되었지만 역시 비녀 모양의 봉이 장식용으로 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철 위에 금을 입힌 삼엽형 환두태도(72.7cm)는 파손되어 있지만, 손잡이에서 주름 모양과 기타 장식구가 금으로 만들어져서 제작이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다. 이것에는 소도가 첨가되지 않았으며 비녀모양으로 생긴 것만 부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자루의 태도는 제1의 초두 곁에 있었던 것 같다.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尒斯智王’명이 새겨진 큰고리자루 칼은 보고서 도판 하책 제80에 (1)금동작소도부삼엽형환두태도, (2)금은작삼엽형환두태도, (3)금은작소도부삼엽형환두태도로 표기되어있다. 인용한 위의 기록과 비교하면 (1)금동작소도부삼엽형환두태도가 초두 주변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이지만 (2)금은작삼엽형환두태도와 (3)금은작소도부삼엽형환두태도

의 출토 위치는 보고서 상책과 하마다의 『慶州の金冠塚』에서의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보고서에서 ‘도자가 결합된 금동장 환두대도’는 도판 하책 제80의 (3)금은 작소도부삼엽형 환두대도로 관의 남쪽에서 출토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하마다의 『慶州の金冠塚』에서는 관의 동쪽에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서쪽에서 발견된 것은 은장’이라고 한 것은 도판 하책 제80의 (2)금은작삼엽형 환두대도이다. 이와 같이 『慶州の金冠塚』에서도 서측에는 은으로 만든 환두대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두 자루의 태도는 제1의 초두 곁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기술하였는데 초두 곁에 2자루의 환두대도가 있다는 기술은 (1)과 (2)가 같이 나왔는지, (1)과 (3)이 같이 나왔는지는 확연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糸斯智王’명이 새겨진 (1)금동작소도부삼엽형 환두대도가 관의 동쪽 초두 부근에 출토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이다.⁷⁴⁾

따라서 ‘糸斯智王’명이 새겨진 칼은 그 출토 위치로 보아 망자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추모자가 넣어 준 부장품으로도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관총의 피장자와 ‘糸斯智王’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금관총과 異斯夫 간의 편년적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異斯夫가 금관총의 피장자에게 부장품으로 칼을 바친 것이다’라는 전개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금관총의 편년과 이사부의 활동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간의 신라고분 편년 연구를 참조하여 이사부와 금관총의 연관관계를 재정립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5세기 후반의 신라고분 상대편년 진행은 ‘황남대총 남분 -

74) 김대환(2014),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조사와 의의」, 『考古學誌』 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북분 - 금관총 - 천마총' 순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절대편년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지가 엇갈리고 있는데,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가 눌지 마립간이라는 여러 주장을 전제로 하고⁷⁵⁾, 금관총의 규모가 마립간의 왕릉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아 왕릉이라기보다 6부의 고위 지도층의 무덤으로 사료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금관총의 피장자가 사망하였을 때 '비교적 어린 나이인 왕족 계열의 이사부가 추모의 의미로 칼을 바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되었던 고고학적 관점에서 '尒斯智王'이 異斯夫를 지칭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사부가 금관총의 피장자에게 부장품으로 칼을 바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IV. 맺음말

'尒斯智王'이라는 왕명이 환두대도에서 발견되었을 때, 국내의 문헌자료에서는 그 주인을 찾을 수 없어 해석에 난항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尒斯智王' 명문의 발견은 그동안 상대편년 만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신라 고분연구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

75) 이창희(2012),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皇南大塚南墳과 須惠器의 실연대 : 방사성탄소연대의 적용방법과 타당성 재고」, 『古文化』 第79號,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이주헌(2014), 「皇南大塚 南墳 出土 銅錢의 性格과 曆年代」, 『新羅文化』 第43輯,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박천수(2016), 「慶州 皇南大塚의 曆年代와 新羅 陵園의 形成 過程」, 『新羅文化』 第47輯,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에 필자는 『일본서기』의 사료를 단서로 고대 신라어의 표기법과 고고학적인 관점, 기타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糸斯智王’은 異斯夫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금관총의 피장자가 이사부가 아니라 피장자를 위하여 이사부가 바친 칼이라고 본다면, 금관총의 절대 편년은 6세기 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5세기 4/4분기로 추정되던 고고학적 견해와 충돌되나, 앞서 제시한 문헌사료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금관총의 연대를 재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연구되었던 고고학적 견해를 계승하는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糸斯智王’이 異斯夫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糸斯智王이 금관총의 피장자에게 칼을 바친 것이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異斯夫가 6부의 지도층 무덤인 금관총에 부장품을 전달한 것이라는 가정도 할 수 있다.

물론 금관총 발굴 당시 빠른 시일에 발굴이 마무리 되어 발굴 당시의 상황과 출토유물의 배치를 특정 인물의 기억에 의존해서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아직 『일본서기』에서 이사부를 지칭할 때 같이 기록되었던 ‘久禮爾師知’라는 칭호에서 ‘久禮’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아직 의문이 많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제시되는 편년과 국내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편년, 그리고 『일본서기』의 편년이 상충되며, 『일본서기』가 기록하고 있는 사료의 비판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아직 누구도 풀지 못한 ‘糸斯智王’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그리고 신라 중고기의 금석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기록을 『일본서기』를 통해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 금관총의 연대를 재구성하여 관련 논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고 문헌

· 금석문

迎日冷水里新羅碑

蔚珍鳳坪新羅碑

丹陽新羅赤城碑

蔚州川前里刻石

· 문헌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訓蒙字會』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花嚴經』

『高麗史』

· 단행본 및 기타자료

朝鮮總督府(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 조선총독부

浜田青陵(1932), 『慶州の金冠塚』, 경주 고적 보존회

최병현(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김용성(1998),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 춘추각

노태돈(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早乙女雅博(2000), 『조선반도의 고고학』, 同成社

이한상(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11), 『경주 금관총 발굴조사보고서(국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2014), 『금관총과 이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 참고 논문

- 강봉룡(2010), 「이사부 생애와 활동의 역사적 의의」, 『이사부와 동해』, 한국이사부학회
- 김대환(2014),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조사와 의의」, 『考古學誌』 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 김두철(2007), 「삼국 · 고분시대의 연대관(Ⅱ)」, 『한일 삼국 · 고분시대의 연대관(Ⅱ)』, 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 외
- 김종택(2000), 「경산지역의 옛 지명 연구」, 『경산문화연구』, 경산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
- 김재홍(2014), 「金冠塚 출토 ‘尙斯智王’ 銘 大刀와 피장자」, 『考古學誌』 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 김창호(2014), 「신라 금관총의 尙斯智王과 적석목곽묘의 편년」, 『新羅史學報』 第32號, 신라사학회
- 김태식(2004), 「냉수리비로 構築한 신라 ‘Seven King論」, 『新羅史學報』 第1號, 신라사학회
- 藤井和夫(1979), 「경주고신라고분편년시안」, 『神奈川考古』, 神奈川考古同人會
- 박광렬(2014), 「신라 적석목곽분의 연구와 금관총」, 『考古學誌』 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 박천수(2006), 「신라 · 가야고분의 편년」, 『한일 삼국 · 고분시대의 연대관(Ⅱ)』, 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 외
- 박천수(2016), 「慶州 皇南大塚의 曆年代와 新羅 陵園의 形成 過程」, 『新羅文化』 第47輯,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백승욱(2014), 「加耶諸國의 존재형태와 ‘加耶地域國家論」, 『지역과 역사』 34, 부경역사연구소
- 이근우(2005), 「『日本書紀』, 『神功紀』 加羅 7국 정벌 기사에 대한 기초적 검토」, 『

- 한국고대사연구』 39, 한국고대사학회
- 伊藤秋男(1972), 「이식의 형식학적 연구에 기초한 한국고신라시대의 고분편년에 관한 일시안」, 『조선학보』, 조선학회
- 이명식(2004), 「新羅 中古期の 將帥 異斯夫考」,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성주(1993), 「낙동강동안양식토기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학술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 이용현(2014), 「‘尔斯智王’명 大刀와 新羅文字資料」, 『考古學誌』 第20輯, 국립중앙박물관
- 이주현(2014), 「皇南大塚 南墳 出土 銅錢의 性格과 曆年代」, 『新羅文化』 第43輯,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창희(2012),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皇南大塚南墳과 須惠器의 실연대 : 방사성탄소연대의 적용방법과 타당성 재고」, 『古文化』 第79號,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이희준(1997), 「토기에 의한 新羅 고분의 分期와 편년」, 『韓國考古學報』36, 韓國考古學會
- 전덕재(2014), 「異斯夫의 家系와 政治的位相」,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 최병현(2000), 「嶺南地方 考古學資料의 編年 -4세기대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論叢』1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 최병현(2014), 「신라 적석목곽분과 마립간시기 왕릉 연구의 현황」, 『금관총과 이사지왕』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